

무주군, 남대천 야간경관 재가동

별빛다리·음악분수 정상 운영으로 관광객 맞이... 안성낙화놀이 5~6일 개최

무주군이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축소했던 남대천 일대 야간경관 시설물을 지난 1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와 하절기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추진된 것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야간 불거리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남대천 일원 '별빛다리'는 영상 송출과 함께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음악분수'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하루 두 차례 가동된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무주안성낙화놀이가 5일과 6일 이틀간 안성면 두문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무주안성낙화놀이는 안성낙화놀이보존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전통 민속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무주군이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축소했던 남대천 일대 야간경관 시설물을 지난 1일부터 정상 가동했다.

매김하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낙화놀이 관람을 비롯해 소원 낙화봉 만들기 체험, 딱지러 부스, 지역 프로그램 홍보·체험, 특산물 및 로컬상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낙화놀이 시연은 양일 모두 오후 8시 40분부터 진행되며, 이에 앞서 마술공연과 국악공연, 지역 예술인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는 관광객 안전과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장권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무주안성낙화놀이'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으며, 입장료 가운데 1만 원 상당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제공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 반딧불이 신비탐사 개막

반디플리마켓·체험행사 풍성

무주군이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반딧불이 신비탐사 가 운문산반딧불이 출현 시기에 맞춰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탐사는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기간과 맞물려 운영되면서 관광객과 영화제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탐사 출발지인 무

주반디랜드에서는 '2026 야간관광진흥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반디플리마켓'이 함께 열린다. 반디플리마켓은 3일부터 7일까지,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행사장에서는 산나물비빔밥과 목사발을 비롯해 떡볶이, 어묵탕, 아이스크림, 무주대학할육수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 '도자기 반디 열쇠고리', '반디 무드등', '액마이 명대 초인종' 만들

기 등 공예 체험과 인형·파우치·양말목 공예를 활용한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우리 집 가훈 쓰기', '나만의 향수 만들기' 등 감성 체험과 꽃다발, 테라리움, 다육식물 만들기 등 자연 친화형 체험도 운영된다. 행사장에는 기념사진 촬영 부스가 설치되며 버블쇼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참가 신청은 무주반디랜드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다. 참가비 가운데 1만 원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제40주기 추모제 거행

장수군은 지난 1일 계북면 정인승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 정인승 선생을 기리는 제40주기 추모제를 엄숙히 거행했다.

이날 추모제는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김종열)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진현 유족대표,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김종열 회장의 초헌례, 양옥길 계남면 유학의 아헌례, 박세정

계북면 유학의 종헌례 순으로 진행되며 민족문화 보존과 한글 발전에 평생 바친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건재 정인승 선생은 1897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연희전문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한글 연구에 매진했으며, 조선어학회 활동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보급 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한글'지 발행을 주관하고 우



리말 체계화 작업의 핵심 연구에 참여한 하는 등 민족문화 보존과 국어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 속에서도 한글 연구와 보급에 일생을 바친 대표적인 한글학자로 평가 받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진안군, '빠망카드' 로 교통·목욕 복지에 기본소득까지 통합 지원

진안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 선정을 앞두고,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인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며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군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사업 선정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된 진안군의 통합복지 플랫폼은 기존 복지서비스와 기본소득 지급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65세 이상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통비와 목욕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에 기본소득 지급 기능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진안군은 '빠망카드'를 기반으로 교통복지와 생활복지, 각종 정책수당은 물론 기본소득까지 통합 지원이

가능한 원카드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여러 장의 카드를 따로 소지하거나 개별 서비스를 각각 이용해야 하는 불편 없이 빠망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기본소득 지급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운영의 체계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진안군의 플랫폼 구축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는 것이다. 시스템 개발과 운영 준비를 마친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별도의 구축 기간 없이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학천지구 통합개발' 브랜드 명칭 군민 공모

진안군은 지역 문화·여가·복지의 핵심 거점이 될 '학천지구 통합개발 사업'의 브랜드 명칭을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전격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천지구 내에 조성 예정인 온가족 다올마루, 복합플랫폼, 지혜의 숲 도서관, 문화예술화관 등 4개 주요 시설을 하나로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명칭 선정 과정에서부터 군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 자격은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1개 작품에 한해 응

모가 가능하다. 접수는 진안군 누리집(홈페이지) '소통/참여 내 고시/공고'란 또는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rsj1320@korea.kr)로 제출하거나, 홍보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네이버 폼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작은 1차 위원회 심사(상징성·대표성·창의성 평가)와 2차 온·오프라인 설문 투표(선호도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대상 1명에게는 30만 원, 우수상 1명에게는 20만 원 등 총 50만 원 상당의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6월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잇따라 개최

진안군은 6월 한 달 동안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체육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전국 각지의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 등이 대거 방문하는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숙박·음식업소 이용 증가와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이고, 스포츠와 관광이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다. 먼저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안공설운동장과 용담·상전·정천 체련공원 일원에서는 '2026년 진안홍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개최된

다. 이어 13일부터 14일까지는 진안문화체육회관에서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기 유도대회 및 회장기 유도대회'가 열려 도내 유도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게 된다.

20일부터 21일까지는 진안 다목적구장과 보조경기장에서 '2026년 진안홍삼배 전북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개최되며, 27일부터 28일까지는 진안 파크골프장에서 '제5회 진안홍삼배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열려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진안을 찾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부남면 지사협, '부부 사진 추억 만들기' 호응

무주군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달 27일 '부부의 날'을 맞아 '당신과 지금, 부부 사진 추억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전문 사진 촬영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 200만 원 전액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반디나눔' 모금액을 활용해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소방서, 주택 화재 초기 진화 '더블보상제' 적용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4월 30일 지역 내 주택 화재 현장에서 가정용 소화기를 사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잡아낸 윤효식(74) 씨에게 더블보상제를 적용하여 새 소화기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더블보상제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이 본인 소유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나설 경우, 사용한 소화기의 2배를 새것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더블보상제 제2호 주인공인 윤효식씨



는 계북면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지체 없이 비치해 둔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켜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